

# 가팔라지는 인구 감소폭 사라지고 비어가는 전남

### 사회지표·통계로 본 지방소멸 위기

전남 인구 증감 2016년 -0.3%

2020년 -0.9% 2021년 -1.0%

2021년 출생아, 전년비 13% 급감

나주·여수도 소멸위험지역 포함

65세 이상 25.2% 고령화도 빨라져

지방소멸. 사람·돈·정보·기업 뿐 아니라 기회까지 서울에 집중되면서 만들어진 서울공화국과 달리, 사라져가는 지방의 위기를 실감할 수 있는 말이다. 수도권과 서울에는 사람과 돈, 기업이 몰리는데 균형발전의 한 축인 지방은 붕괴되는 현실은 정부의 공허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포그라들고=전남 인구 수는 지방 붕괴의 위기를 엿볼 수 있는 통계로, 급감세가 롤러코스터급이다. 전남의 사회지표로 본 지난 2021년 전남의 주민등록인구는 183만2803명으로 전년 대비 1만8746명이나 줄었다. 2020년(185만1549명) 인구가 전년보다도 1만7196명 줄 것을 감안하면 감소폭이 더 커진 것이다.

전남 인구 증감률은 2016년(-0.3%) 이래 -0.4%(2017년)→-0.7%(2018년)→-0.8%(2019년)→-0.9%(2020년)→-1.0%(2021년) 등으로 매년 감소폭이 커지는 행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가 181만 7697명으로 전년보다 1만5106명 줄어들면서 다소 추축하긴 했지만 1만 5000명이 줄어들었다.

아이 울음소리도 듣기 힘들어진 지 오래다. 지난 2021년 기준 출생아는 8430명. 전년(9738명)보다 13.4% 급감했는데, 사망자는 1만7568명으로 두 배 이상 많다. 전남에서는 2020년부터 출생아 수가 1만명 이하로 떨어졌는데 연간 사망자 수는 2020년부터 1만7000명을 넘어섰다.

◇사라지고=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지방소멸 특집호'로 내놓은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전국 102곳이었던 국내 소멸위험지역은 지난해 3월 113곳으로 2년 만에 11곳 늘었다.

전국 228개 시·군·구(제주와 세종은 각각 1개 지역으로 계산)의 약 절반(49.6%)이 인구가 줄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게 당시 고용정보원의 분석이었다.

소멸위험지역은 지역별로 65세 이상 노인 대비 20~39세 여성 비율을 따져 소멸위험지수를 산출한 뒤 분류한다.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가입여성 인구보다 노인 인구가 2배 이상 많아 인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 지수가 0.2 미만은 소멸고위험지역이다.

가장 최근 조사였던 2020년과 견줘 지난해 조사에서는 전국 11개 기초자치단체가 새로 소멸위험에 진입했는데, 전남에서는 나주(0.465), 여수

### ■전남 시·군별 노인인구 현황

(단위:%, 2022년 12월말 기준)

지역	노인인구 비율	지역	노인인구 비율
목포시	18.8	장흥	36.6
여수	21.4	강진	37.0
순천	17.2	해남	34.8
나주	23.6	영암	28.5
광양	14.7	무안	20.3
담양군	32.9	함평	39.1
곡성	38.3	영광	30.7
구례	36.8	장성	32.2
고흥	43.2	완도	34.8
보성	41.2	진도	35.7
화순	28.5	신안	38.7

(0.482)가 새로 포함됐다.

나주의 경우 2012~2013년만 해도 소멸위험지수가 0.39에 불과했다. 또 혁신도시 조성 등이 분계도에 오르면서 2018년(0.54)에는 다소 상승하는 듯 했지만 지역 일자리 상황 악화로 2020년 0.51로 내려앉았고 이번 조사에서 소멸위험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여수도 충격적이다. 여수는 2000년만 해도 소멸위험지수가 2.15에 달할 정도로 높아 소멸위험이 거의 없는 지역으로 꼽혔지만 2011년 0.98로 '소멸주의지역'으로 처음 분류된 이후 매년 지수가 낮아지더니 2020년(0.56)을 거쳐 올해는 0.48로 처음 소멸위험지역으로 진입했다. 10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도시라는 말이 무색한 지경이다.

전남에서는 22개 시·군 중 목포(0.59), 순천(0.69), 광양(0.77), 무안(0.54) 등 4개 지역만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2020년에는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 등 5개 시와 무안 등 6개 지역이 소멸위험지역에서 빠졌다.

특히 전남에서는 삶의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기반 붕괴로 소멸이 현실화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소멸고위험지역'(0.2 미만)이 11곳으로 늘어나 사라질 고향 살리기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2년 전 소멸고위험지역은 5곳(곡성·고흥·보성·함평·신안)이었다.

◇늘어가고=전남의 고령화는 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이다. 행안부의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한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45만 7481명으로 전남 인구(181만 7697명)의 25.2%다.

전남은 2008년만 해도 17.6%였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14년 20.1%로 올라서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더니 21.0%(2016년)→22.6%(2019년)→23.5%(2020년)→24.3%(2021년)→25.2%(2022년) 등으로 가파르게 늘어가고 있다.

전남의 노령화지수(15세 미만 인구 10명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도 2021년 기준 217.2%로, 전국의 노령화지수(144.5%)를 압도할 정도로 높다.

고령화가 심해질수록 생산가능인구는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남의 생산가능인구는 젊은 층(25~49세)의 탈(脫) 전남' 영향으로 118만 3000명(2021년 기준)에 머물렀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세계로 뛰는 대도약...100년 주춧돌 놓겠다”

### 김영록 전남지사 신년인터뷰

민선 7기에 이어 8기를 이르고 있는 김영록 전남지사는 요즘 '좋은 정책'을 찾고 있다. 전남도민들이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잘 살 수 있게 할 지를 고민하며 책을 읽고, 사람을 만나 문기를 반복하는 것이다. 인구 감소, 고령인구 증가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여건에서 그는 올해를 '세계로 뛰는 전남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았다. 경쟁력을 충분히 갖겠다고 판단한 자원을, 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 첨단 반도체, 우주·항공, 데이터, 관광 등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신산업을 전면에 내세워 전남을 세계인들에게 각인시키겠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위기, 불리함을 떨쳐내고, 전남 부흥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다. 도민들이 전남도에 살고 있다는 것에, 향우들이 전남 출신이라는 것에, 자부심, 자긍심, 자신감을 갖게 해주고 싶다.

그는 민선 7기 전남지사로 취임한 뒤 민선 8기 현재까지 시·도지사 평가에서 몇 차례를 제외하고 꾸준히 1위를 달릴만큼 이미 도민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다른 단체장은 물론 정부부처, 여·야 정치인들도 그 배경을 궁금해한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전남도와 시·군 행정, 2선 국회의원으로 중앙 정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중앙 행정을 두루 경험하며 쌓은 지혜를 잘 녹여내고, 고향이자 지금까지 자신을 풀어준 전남에 대한 진심과 애정이 가득하며, 설득력 있고 공간이 가는 업무 지시와 투명한 인사로 조직을 통솔하고 있는 것이 그의 큰 장점이다. 여기에 현장을 가보고 지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고민하며 적용하려 애를 쓰고, 소통하기를 즐기는 것도 높은 인기에도움이 되고 있다.

최근 어깨를 짓누르는 책임감에 리더로서의 자세를 새삼 가다듬고 있는 김 지사는 최근 지인에게 선물받은 도리스 컨스 국인의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을 계속 다시 읽고 있다. 링컨, 시어도어 루스벨트, 프랭클린 루스벨트, 린든 존슨 등 4명의 미국 대통령을 조명해 이 책에서 그는 위기 속에서 담담하고, 따뜻하며, 실천적이고, 명확하며, 포용력 있고, 관대한 판단을 내리고 대처하는 리더십을 곱씹어 보고 있다. 지역민을 가장 앞에 두고, 제일 먼저 생각하겠다는 리더 김영록의 민선 8기가 더 기대되는 이유다. 민선 7기부터 그가 이끌고 있는 전남도정의 기조는 시대적 과제, 세계 추세와도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탄소중립과 RE100으로 대표되는 기후변화대응,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인재 육성, 혁신기업 육성 및 유치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된 정책, 사업, 프로그램 등이 얼마나 성과를 낼 지도 민선 8기 전남을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신년사에서 전남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지난 60년간 수도권 중심의 성장으로 비수도권, 특히 호남의 성장이 더뎠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수도권 중심, 국가 주도의 정책 설계에서 벗어나 사·도·간 초광역 협력체계를 꾸려 새로운 국가 성장축을 만들어야한다. 충청권까지 포함된



### 신해양·문화관광 수도 건설 매진 30년 숙원 의과대학 더 미룰수 없어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먹거리 육성

수도권 중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 제시한 개념이 제3수도 건설, 즉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전남'이다.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에 이어 한반도의 최남단에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전남'을 건설해 지역이 스스로 자립할 '경제 선순환 구조'를 갖추겠다. 여기에 획기적이고 과감한 권한 이양, 지역 공약 이행으로 전남이 '지방시대(국가균형발전)'를 열겠다는 원대한 포부라고 할 수 있다.

-올해는 대단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다. ▲세계적인 불경기에 고금리, 고물가 등이 꽤 지속될 것이다. 여·야 정치권이 민생 문제를 외면하고 있어 더 걱정이다. 정부 정책과 입법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특별정책자금 증액, 특례보증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인들의 피부에 와닿게 해야 한다. 어려운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다. 기름 값, 전기료 등 이들을 옥죄는 문제들을 직접 해소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전남을 위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전남에 미래스마트신도시(미래행복루시티)를 조성하고 싶다. 세계적인 엔지니어, IT전문가 등이 거주하며, 환경친화적으로 설계되고 첨단혁신기술이 녹아들어 있는 진정한 미래 도시를 지역민에게 선사하고 싶다. 의과대학 설립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에 의대 정원 증원을 요구하고, 보건 의료노조, 경실련, 간호협회 등도 필요성

을 적극 공감하고 있는 만큼 곧 건설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남 미래 먹거리가 무엇인가. ▲전남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지역으로, 이미 여러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광양제철소는 단일 조강생산 능력으로 세계 1위, 여수국가산단도 단일 규모로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화학산단이며, 대한조선은 중형유조선 건조 부문에서 세계 1위다. 신재생에너지, 첨단 반도체, 우주·항공, 데이터, 관광 등 세계를 선도할 신산업 역시 그 기반을 닦아 나가고 있다.

-세계와 경쟁할 전남의 자산과 자신감의 배경은. ▲지난 4년 6개월 동안 전남을 온 몸으로 오롯이 경험했다. 전남이 '농도'여서 아직 발전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있지만, 무한한 잠재력과 기반을 갖추고, 성장하고 있다. 1인당 총생산(GRDP) 4위, 지역 총생산(GRDP) 8위, 사업소득 전국 1위, 1인당 근로급여소득 9위 등 각종 수치에서 평균을 웃돌고 있다. 하루빨리 '지방시대'를 열어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을 놓아야 한다. 전남은 태평양과 세계를 향해 있는 최일선이자 전진기지이며, 자신감을 갖고 최선을 다한다면 전남이 남겨진 땅에서 기회의 땅, 미래의 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지난해 만난 도민 중 기억에 남은 사람이 있다면. ▲농업인 두 분이 참 기억에 남는다. 장흥에서 애플망고를 재배하고 계신 아름농원 김승미 대표와 구례 목활뽕집의 장종근 대표다. 김승미 대표의 미래를 내다보고 과감히 애플망고에 투자해 1000평을 토경재배로 직접 농사를 지으며, 3년 만에 성공 농업인으로 자리 잡았다. 목활뽕집 장종근 대표는 1인 창업으로 시작해 현재 30인 규모 소기업을 일군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모두 시대를 읽고 끊임없이 노력해 온갖 역경 속에서도 잡초처럼 이겨낸 끈성과 자력이 보였다.

-거듭되는 참사, 지방 소멸, 양극화 등 속에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싶다. ▲국가는 국민이 어디에 있는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개인 자유와 안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기 부양책과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 호남은 저력 있는 고장이다. 특히 호남은 역사의 고비마다 물줄기를 바로 세웠고,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해 왔다. 국가 전체적으로 지방 소멸, 양극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전남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미래·희망을 꿈꿀 수 있는 탄탄한 사회·경제적인 안전을 위해 그 기반과 여건을 다지겠다.

-마지막으로 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지난해 전남도는 전국 지자체 일자리 종합대상과 한국에너지대상을 비롯해 96개가 넘는 크고 작은 상을 받았다. 우리가 생각보다 잘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경제 발전과 함께 전남만의 고유한 전통과 역사를 잘 살려 더불어 잘 사는 대동세상, '따뜻한 행복 공동체, 전남'을 만들어 나가겠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2023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모집

## Passion Vision Truth

###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학 과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인 문 사 회	신 학 과		23
	한국어교육학과		2
	복지상담융합학부		10
사 범	유아교육과		3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6
예 능		총 계	44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교사로(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2. 12. 29(목) ~ 2023. 1. 2(월)  
· 전 형 일: 2023. 1. 9(월)

### 대학원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 집 인 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성경연구학과(Th.M.)	○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Ph.D.)	○
		목회학과(D.Min.)	○
		유아교육학과(D.Ed.)	○
		코칭심리학과(D.Psy.)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심리치료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코칭심리학과(M.Psy.)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M.A.)	○
국제대학원	석사	재활심리치료학과(M.A.)	○
		사회복지학과(M.S.W.)	○○
국제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
		한국어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
		휴먼서비스교육학과(M.Ed.)	○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3. 1. 25(수) ~ 2. 3(금)  
· 전 형 일: 2023. 2. 6(월)

사랑과 감사의 68년

1954 ~ 2022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www.kwangshin.ac.kr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로131번길 36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 대학원 0621 605-1115